

설날 가정 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20-21)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384장 (통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같이

1. 나의 갈 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 나의 갈 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 나의 갈 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 에 있는 긍휼이 찌 의 심하리 요
 어 려운 일당한 때 도 족한 은 해주시 네
 그 의 사 랑어찌 큰 지 말로 할 수없도 다

믿 음은 으 로 사는 자 는 하 늘 위 로 받겠 네
 나 성 심 감 화고단 하 고 영 혼 매 우 갈 때 나 에

무슨 일 을 만나 든 지 만 사 형동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석 에 서 샘물 나게하 시 네
 영영 부 들나의 찬 송 예수 인도하 셧

무슨 일 을 만나 든 지 만 사 형동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석 에 서 샘물 나게하 시 네
 영영 부 들나의 찬 송 예수 인도하 셧 네 아 멘

▶ 가족기도문 / 온가족

인도자 :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 족 :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인도자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가 족 :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자 :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가 족 : 우리 또한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 기도로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으며

가 족 :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같이 : 한 해 동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나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2:1-2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가족 나눔의 시간

2019년 2월 5일(화)

1.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서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거나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결과나 소유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씩 나눠봅시다.

2.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들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부탁함'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를 이어 부탁하고 싶은 신앙의 가훈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가훈을 기도제목 삼아 함께 기도해봅시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 찬송 563장 (동411) 예수 사랑하심을 / 다함께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셨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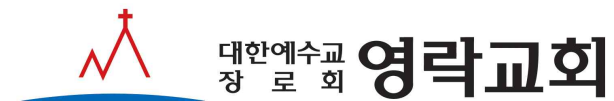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늘문 열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날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에 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설날 가정에 배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디모데후서2:1~2)